

한국과 영국의 학교 성교육 비교연구

김 정 옥

대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School Sex Education in Korea and the U.K.

Kim, Jung-Ock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uman Ecology, Taegu University

Abstract

Sex education in the U.K. follows an ideal model, co-operation where ever possible between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whereas in Korea schools are mostly responsible for sex education. Moreover, Central Government and LEAs are deeply involved in school sex education in the U.K., in contrast, the concrete help at Government level is very limited in Korea though the necessity of sex education is acknowledged. These differences be accounted for by the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given the different thoughts of the people-oriental and occidental-. In the U.K., sex education has been a compulsory subject in secondary schools since 1994 (by the Education Act 1993), and it is well managed with the support at Government level as compared with that of Korea. Sex education in the U.K. may give some lessons for practising and developing sex education in Korea because the people in both countries have similarly conservative thinking about school sex education and it is implemented very carefully in the U.K.. In this article, a general comparison of background, policy, aims, content, management, teacher training, and materials of sex edu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made.

I. 서 론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인간교육인 동시에 인격교육이다. 또한 학교 성교육은 일생을 통하여 완전한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인간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각급 학교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인간발달과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영국에서도 성교육은 현재와 미래-성인과 부모로서-의 삶을 위하여 아동들을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Her Majesty's Inspectorate, 1986)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아동들의 성인기 생활을 위한 준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1994).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교육의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두 나라 모두 역사가 그리 오래지는 않다. 영국에서는 1943년 교육성(the Board of Education)에서 'Sex education in Schools and Youth Organisations'라는 소책자를 내고 교사와 교사 지망생들을 위한 성교육 특별과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난 뒤의 일이며(Greaves, 1965),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문교부에서 최초의 성교육 방침이 발표된 이후의 일이다(김영옥, 1966). 영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비록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매우 신중하게 성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교육의 운영방법, 교사교육 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성적 문란의 방지를 위해 제창되었으나(김원근, 1969; 문원일, 1975; 윤현숙, 1977; 최용학, 1976) 점차 그 개념은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인간교육으로 이해되어져 왔다(문교부, 1983). 이것은 비록 실제적인 학교 성교육의 운영방법이 영국과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성교육 지침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교육의 기본철학과 매우 유사하다(DFE, 1994). 영국의 성교육 교과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이는 두 나라의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미혼모의 증가(김부자, 1986; 탁연택, 1974; 한국여성개발원, 1984; Jones, et al., 1986), 청소년들의 성범죄 증가(법무연수원, 1991) 등과 같은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있는 우리나라와 영국에 있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교육이 10대 임신과 인공유산율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며(Jones, et al., 1986; Massey, 1990; Reiss, 1993), 청소년들의 생활동을 늦추도록 하는데 고무

적(Baldo, 1993; Massey, 1990)이라는 영국의 선행연구 결과는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우리나라에도 사회병리현상의 치료책으로서 성교육이 희망을 준다. 최근 소년가장에 대한 상습적 성폭행, 여중·고생의 수업중 또는 등교길 출산 등 잇단 충격적인 보도로 인하여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대상자가 주로 학생들이며 또 교육이라는 점에서 특히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의 학부모들과는 달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성교육내용을 선택하는데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교과내용이 주로 교육관계자들에 의해 정해지며 중앙집중적 교육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교육행정이 철저한 지방분권주의이기 때문에 비록 교육성의 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에 핵심 지도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HIV와 AIDS 및 다른 성병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며, 성교육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별 학교의 재량에 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실시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영국은 그러한 이상적인 모형에 가장 접근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 영국에서는 1994학년도부터 중등학교에서 성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었는데 보수적인 영국 국민성에 걸맞게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매우 신중하게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험과 성교육 실태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학교 성교육에 대한 정부 방침, 그리고 학교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성교육의 목표, 지도내용, 운영방법, 교사교육 및 성교육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초·중등학교 방문과 관련조사 면담, 성교육 관련 부모교육 참석, 성교육 전문가 면담 등도 병행하였다.

II. 성교육의 배경

6·25전란 이후 우리의 생활양식이 급속히 서구화되어 온 것에 비한다면 사고의 개방화는 상대적으로 더디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유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유교는 20세기 초까지 500여년 동안 국가의 통치이념이었고 서구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에 많은 제약을 주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유교적 가르침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교육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으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차재순, 1957). 순결교육대신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부터였다(박준희, 1970).

문교부는 1983년에 '성교육 지도자료-교사용-'을 발간하고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으며, 이것은 관심있는 많은 교사들에게 상당기간 성교육 지침서로서 활용되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시는 문교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으나(장일현, 1985)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혼란받지 못한 성교육 교사 등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교육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였다(김정옥, 1992). 이러한 결과의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교사교육이나 교재개발 등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했던 행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교육이 원칙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성교육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전통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이르러 범람하는 성범죄와 성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되고는 있으나 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환경은 지난 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다. 영국에서는 1943년 이래 중앙 행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국이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깊이 관여해 오고 있다(Burke, 1970). 상당수의 중요한 정부 보고서와 팜플렛, 그리고 지방 교육국들의 활동 모두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일

부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Burke, 1970; Harris, 1969). 그리하여 성교육은 과학, 보건, 사회 등의 교과에서 상호 협력체제로 수행 되어진다. 이것은 개정된 교육법(the Education Act)과 상세한 성교육 지침에 의해 더욱 뒷받침 되고있다.

그러나 영국의 학부모들은 교육성의 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 내용과는 다른 성교육의 전부 혹은 일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자녀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the Education Act, 1993), 실제로 일부 학교, 특히 가톨릭계 학교에서 이러한 권리가 행사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일부 영국 국민들도 성교육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의 한 연구는 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16세 이전에 성경험을 시작하였음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Johnson, et al., 1994). 성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영국간에는 한 가지 대조적인 차이가 있다.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성교육에 의욕적인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잘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는 아직 미미한 반면 성교육이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절대 간과 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외치는 열성적인 교육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안전교육으로서 유치원으로부터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김정옥, 1992; 주명자, 1985), 성범죄에 있어서 어린이 피해자는 청소년 범죄, 미혼모의 증가와 아울러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김부자, 1986; 법무연수원, 1991; 10대들의 쪽지, 1990; 한국여성개발원, 1984).

영국도 10대 임신(Department of Health, 1991; OPCS, 1993), 인공유산(Jones et al., 1985), 성병, 특히 AIDS(Ford, 1991; NHA & NCC, 1993) 등과 같은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HIV와 AIDS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보고가 있으며(Becker & Dlugolecka, 1987; Blakey & Pullen, 1991; Boyle et al., 1989; Breakwell & Fife-Schaw, 1991; Clift & Stears, 1991; Grunseit, 1994; Hämmäläinen & Kiukaanniemi, 1992; Howe, 1990; Maylath & Gray, 1993; McEwan et al., 1991; PHLS AIDS Centre & CDEH(S)U, 1994; Redman, 1987; Rivers & Aggleton, 1993; Young & Phillips, 1994) 모든 중등학교에서 반드시 다루

어야 하는 주제이다(the Education Act, 1993). 사실,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성교육이 의무교육화된 배경에는 성 개방 풍조에 따른 10대 성경험자들의 증가와 AIDS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회 현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HIV와 AIDS에 관해서는 최근 한국인끼리의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지만, 영국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리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않다. 약 4,500만인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조금 많은 약 6,000만의 인구를 가진 영국이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리나라의 AIDS 환자 수는 1985년 이후 1994년 말까지 413 명인데 반해(보건복지부, 1995), 영국의 AIDS 환자 수는 비슷한 시기인 1984년 10월부터 1992년 3월까지 17,494 명으로 보고 되었다(NHA & NCC, 1993).

비록 젊은 세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두 나라간에 다르다 할지라도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사회병리 현상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III. 성교육 방침

영국의 성교육 방침은 학교 성교육시 법적 태두리 안에서 “명확한 지도와 실제적인 조언”(Sex Education Forum, 1994)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피임에 관한 조언은 의료행위를 가하는 것과는 달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부모나 양육 책임자들과 대화를 가지도록 용기를 북돋아야 한다. SEF(1994)에 의하면 lesbian과 gay 문제에 관한 주제도 학교 성교육 시에는 편견없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학교 성교육 방침의 개발을 위한 지침, 성교육 교과과정의 내용, 자녀를 성교육 수업에 참여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부모의 권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더우기, 1987년 이후부터 영국내의 모든 학교 운영위원회들은 소속 학교가 자체의 성교육 방침을 가지도록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성교육 방침은 성교육의 목표와 뒤섞이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예를 들면, 올바른 성의식과 분별있는 성윤리관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한

다(문교부, 1983)는 것이다. 성교육 방침은 성교육 교사들의 행동 지침과도 같은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성교육 방침없이 교사의 경험적 판단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지도를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뿌리깊은 유교적 사고의 잔재 때문에 성교육 자료집의 내용은 영국에서와 같이 성행동과 관련된 실제적인 요인들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남녀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김정옥, 1992 ; 문교부, 1983).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므로(교육법, 제1조) 학교 성교육의 기본방침도 이러한 교육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성교육시 피임, 인공유산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거나 또는 성교육 협의회 구성 등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입각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것은 아마도 이러한 주제들이 정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면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성교육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위원회의 관심있는 배려로 일부 학교가 성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기도 하였다(문경여고, 1982 ; 순심여고, 1985). 그러나 최근 잇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보도되면서 성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영국의 상황은 이와는 아주 달라서 교사나 학생 등 성교육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부모, 학교 운영 위원, 외부강사들이 성교육의 실시와 토론에 관여하고 있다(Sex Education Policy, 1994 ; the Education Act, 1993). 일부 성교육 관계자들은 이러한 협력체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피교육자 주변의 사람들을 성교육에 관여시키고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등은 교육효과 면에서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정부 차원의 비중있는-상세하고도 구체적인

학교 성교육 방침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학교 성교육의 목표

‘성교육 자료-교사용-’(문교부, 1983)을 포함하여 ‘80, ‘90년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은 ‘완전한 인격의 형성’을 대목표로 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목표를 갖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관하여 학습한다.
2.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3. 건전한 성도덕관을 갖도록 한다.
4. 인간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5.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김순오, 1983 ; 김정옥, 1992 ; 문교부, 1983).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영국의 성교육 목표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영국의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게 표현된다. 인간의 존엄성 확립을 성교육의 기본철학으로 하고(SEF, 1994) 대목표는 성인생활을 위한 준비(HMI, 1986 ; the Education Act, 1993), 그리고 세부목표는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와 관련지어 명확히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10대 또는 저연령층의 임신률 줄이기
2. 성병 감염률 줄이기
3. 신체발달과 성(sexuality)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4. 사회에서의 성적 불평등 행위를 지각하고 정의, 공정, 남을 존중하기와 같은 기본적 가치관을 심어주기(National Curriculum Council, 1990a &

1990b ; Massey, 1990 ; Reiss, 1993 ; Stears & Clift, 1990 ; Went, 1985).

〈표 1〉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교 성교육의 목표를 대비해 본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세부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우리나라에 비해 영국의 선행 연구자료에는 성교육의 기본철학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만일 영국내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구체적인 사회병리문제에만 연연한다면 성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측면은 차차 망각되어질지도 모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주목적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심각한 성문제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성문제에 대하여 주로 자기 통제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김순오, 1983 ; 한국교육개발원, 1994).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모든 반생명적 행위로부터 자신을, 나아가 이웃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지 않는 한 사춘기의 성적 충동을 욕구 자체나 다른 취미활동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더 심각하다. 10대 청소년들의 5분의 1 이상이 성경험이 있으며(Johnson, et al., 1990) HIV와 AIDS가 심각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HIV와 AIDS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록 개인의 발달과 자아존중 등도 비중있게 다루는 주제가기는 하지만 영국의 성교육은 성문제에 대하여 치료적 기능이 강해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예방적 기능을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교 성교육 목표 비교

	우리나라	영국
기본철학	인간의 존엄성	
대목표	완전한 인격의 형성	성인생활을 위한 준비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학습 · 성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 · 건전한 성도덕관 확립 · 과학적 성지식 습득 · 건전한 가정·사회 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임신률 감소 · 성병 감염률 감소 · 과학적 성지식 증대 · 성적 불평등행위에 대한 지각 ·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가치관 확립

V. 성교육의 내용

영국의 중등학교에서는 1994년 9월 학기부터 성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지도내용에 있어서는 HIV와 AIDS, 기타性病, 그리고 인간의 성행동-생물학적 차원이 아닌-측면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SEF, 1994). 그러나 교육성 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의 과학교과 안에 중요한 성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 교과도 우수하고 발달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교육 교과과정을 제공하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학교마다 성교육 내용은 다를 수 있다(SEF, 1994).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성교육이 정규 교과목은 아니다. 비록 교육부에서 교사를 위한 성교육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고 성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하더라도 현단계로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지 공식적인 교과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연구자들은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내용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 차원의 교과과정처럼 지도내용의 '기준'으로서 인정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조사와 성교육 담당교사의 면담, 교과서 내용 분석, 델파이법을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정리한 모델 교과과정의 내용(김정옥, 1992)과 현행 영국의 성교육 교과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의 내용은 신체발달, 심리발달,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관한 문제로 크게 넷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두 나라의 교육체제와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도내용에 있어서의 주된 유사점과 차이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만 5세에서 7세까지(Key Stage 1)-영국의 교육성 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반면, 이 단계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협력과 부모님의 사랑이 강조된다.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는 인간의 삶의 주기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에 대비한 안전교육이다.

*만 7세에서 11세까지(Key Stage 2)-두 나라 모두 우정의 형태를 고려하면서 신체적, 감정적 발

달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영국의 교과과정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인간관계에 더 큰 역점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도내용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포함한 남녀의 차이와 협력과 아울러 개인의 안전과 몸의 청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TV와 비디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성적 자각에 대처하는 방편으로서 다양한 취미활동에 몰입해 볼 것을 권한다.

*만 11세에서 14세까지(Key Stage 3)-이 단계에서의 지도내용은 영국의 경우 HIV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차성징을 비롯한 신체 및 심리발달에 관한 내용 등 두 나라가 비슷하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부모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가르친다는 것이다(SEF, 1994). 덧붙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평등, 특히 남녀의 평등과 인격존중이 강조된다.

*만 14세에서 16세까지(Key Stage 4)-두 나라 모두 피임, 인공임신중절, 임신과 출산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데 특히 영국의 교과과정에는 이혼, 성적 학대, 상실·별거·사별의 영향, 그리고 성행동과 관련된 법률적 측면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사회단체들에 대해 알기 등이 포함된다(SEF, 1994). 영국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의학적, 유전학적 주제에 치우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성교육 지도내용은 성도덕, 혼전순결, 남녀의 평등, 결혼과 가족, 성욕의 승화 등이 강조되어 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결혼, 임신, 출산, 가족계획, 피임, 임신중절 등의 주제와 더불어 성문제와 관련된 성윤리와 사회문제들을 다루며 영국보다 1년 늦게 우리나라에서는 만 17세에 고등학교 교육을 마무리 한다. <표 2>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교 성교육의 지도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국의 성교육 교과과정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폭넓고도 상세한 과학적 성지식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과학적 성지식을 주면서 성도덕과 남녀의 평등, 성욕의 승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주제는 비록 현실적인 문제는 서로 다를지라도 두 나라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2〉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교 성교육 지도내용 비교

	우리나라	영국
만5세-7세 (Key Stag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의 청결(성기의 청결 포함), 속옷의 청결, 성기 부위 씻는법 · (남녀)배설방법의 차이, 화장실에서의 예절 · 동식물의 종류와 생애 관찰 · 아기의 탄생 · 사이좋은 우리, 몸의 안전 · 남녀의 협력, 가족간의 협력, 가족내에서 나의 존재의 중요성 ·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 · 부모님과 나-출생의 근원, 부모님의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식기관을 포함한 신체 각 부위의 이름 및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 · 인간-움직이고 먹고 자라며, 감각을 사용하고 자녀를 생산; 아기-어린이-어른(아기를 가질 수 있음) · 자기와 다른 아동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 발달의 개인차와 아기의 특별한 욕구 · 성폭력에 대비한 안전교육 · 인간관계교육-듣기, 토론, (경험)나누기 ·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 나와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해 · 감정의 범위와 다루는 방법
만7세-11세 (Key Stag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기의 구조와 청결한 관리 · 몸의 안전 · 아기의 탄생, 생물의 번식과 성장, 생명의 연속성 · 남녀의 이해와 협력, 남녀의 차이와 역할 · 신체발달의 개인차와 성차 · 이성에 대한 관심 · TV와 우리들, 매스컴과 성정보 · 이차성징, 월경의 생리와 처리법, 사정에 대한 이해 ·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동물에 공통된 삶의 과정 · 인간의 삶의 주기 · 사춘기의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 · 위생적 측면에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춘기의 변화에 대한 이해 · 인간의 자손번식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와 부모 역할하기에 기술이 필요함을 이해 · 우정의 여러 양상-책임있는 어른과 대화하기 ·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가치관, 믿음
만11세-14세 (Key Stag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발달의 남녀 및 개인차, 성의식의 발달 · 이차성징과 심리발달-개성의 신장 · 이성에 대한 이해, 이성애의 발달 · 가정에서의 남녀역할,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수정에서 출생까지, 성의 결정, 생명의 존엄성 · 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성행동의 승화 · 남녀의 교제와 이성의 친구, 남녀의 평등 · 성정보와 대응-매스컴의 영향과 우리의 자세 · 청소년기의 성역할 · 성적 욕구와 성행동-인간의 성행동 · 성에 관한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자와 난자의 기능 · 인간의 생식체계, 월경주기, 수정과 태반의 역할 · 태아의 발달 · 사춘기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 · 인간관계에서 선택의 중요성 · 다른 문화 또는 집단의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 · 전형적 이미지와 그것의 다양한 형태 · 현대사회의 성태도와 성행동, HIV · 성행동을 자제할 권리-성행동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
만14세-16세 (Key Stage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성숙-신체적, 정신적 발달, 내분비기능의 발달과 유전정보의 전달체계, 바람직한 자아정체감과 올바른 이성관 형성 · 남녀의 생리와 위생-성기의 기능과 구조, 성기의 청결 · 성적 불안과 성고민-성행동과 성고민 · 성과 인권, 인간과 성, 순결과 성도덕 · 성과 대중문화 · 생명의 창조-인체의 신비, 사랑과 책임 · 성욕과 성행동-대뇌발달과 성욕, 인간의 성행동, 성욕의 승화 · 성병의 종류와 증세 및 예방법 · 남녀의 인간관계-협력과 조화, 평등 · 성의 사회성-성적 사회병리현상, 미혼모 · 결혼과 가족-결혼의 의미, 가족과 가정생활 · 임신과 태아의 성장발달, 출산, 육아, 부모교육 · 남녀의 차이와 인간의 성행동 · 가족계획과 수태조절방법 · 모자보건, 인공임신중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핵과 유전자를 운반하는 염색체 · 호르몬의 조절방법-성 호르몬 포함 · 호르몬의 의학적 사용-수정 조절과 향상 포함 · 유전과 환경의 영향 · 성의 결정 · 유전공학의 기본원리 · 성행동과 관련있는 법률에 대한 이해 · 생식의 생물학적 측면 · 가족계획의 다양한 방법과 장·단점 · 방어적 건강관리의 필요성 · 임신, 출산, HIV/AIDS, 육아,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한 토론 ·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해 알기 · 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 갖기와 성행동의 중요성 · 성 본질의 변화와 삶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 · 연애, 결혼, 이혼과 상실, 별거, 사별의 영향 · 성적 학대에 대한 토론

VI. 성교육의 운영방법

지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 가정과의 성교육 수용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성교육의 운영방법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유치원 교사들은 성교육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주명자, 1985) 유아에 대한 성폭행이 늘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유치원이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비록 성교육과 관련있는 일부 주제들이 도덕이나 체육교과에 포함되어 있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성교육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반면,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의 과학시간에 성교육이 실시되는데 그 내용은 생식기를 포함한 신체 각 부위의 이름 알기, 생식 체계, 남성과 여성의 개념 등과 같은 기초적인 것들이다(SEF, 1994).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순결, 생식 등과 같은 다른 주제와 함께 과학교과에서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분리 여부는 교사들과 다른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국의 중등학교에서는 성교육이 독립교과로 되었다(the Education Act, 199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은 중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으나(박인전, 1983; 최용학, 1982) 그 반향은 미미하였다.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우리나라의 성교육 운영방법은 성교육과 가장 관련깊은 교과인, 중등학교에서는 가정 또는 생물, 초등학교에서는 도덕 또는 체육교과에서 책임을 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 초빙 등 특강 형태로 보충한다는 것이었다(김정옥, 1988; 조재명, 1981). 사실 이것은 성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제로서, 현행 교과서 중 가정과 교과서에 성교육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성과 관련된 학생지도가 많은 지방의 오지 학교에서는 가정과 교사가 성교육 지도를 주로 맡고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시수는 일반적으로 주당

1시간을 추천하는데(김정옥, 1988; 이범수, 1986; 진영옥, 1983) 이것은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EF, 1994).

과거의 성교육은 두 나라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치중된 것이었다(김정옥, 1992; SEF, 1994). 그러나 이제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별은 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응이 늘고 있는데(김정옥, 1988;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회, 1984) 이는 1950년대의 철칙-남교사는 남학생 지도, 여교사는 여학생 지도-(차재순, 1957)와 비교해 보면 커다란 변화이다. 영국에서도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별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남녀 학생이 함께 배울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로 나뉘거나 혹은 성숙과 이해정도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뉘어 지도 받는다. 영국의 중등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남녀 공학이며 남녀 혼성반이다.

두 나라의 성교육에서 가장 의미있는 차이는 영국에서는 자녀의 성교육에 부모가 직접 관여된다는 점이며 또한 교장 선생님을 포함하여 다른 교사들이 성교육시 담당교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the Education Act, 1993; SEF, 1994). 예를 들면,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성교육 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건의, 자녀를 원치않는 성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유고시 담당교사를 대신한 교장 선생님의 수업 진행, 성교육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별도의 교실에 모아 지도하는 동료교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교사와 부모간에 특별한 의견의 나눔 없이 시행되며 성교육 담당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교내 협력체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교육의 수업 진행방식은 비디오 또는 다른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다든가 외부강사나 도움 줄 분들의 초빙 등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하였다(박인전, 1983; 이명화, 1982; Jr. School Sex Education Policy, 1994; SEF, 1994).

간혹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다. 성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다룰때 어떤 교사들은 무사히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 하거나 곤란한 질문이 나왔을때 당황 할지도 모르며 또 어떤 교사들은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된다는 선념으로 세세한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도 하는 것이 교사교육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실정이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가장 유용한 성교육 수업 전달 방식은 먼저 교실내에서 열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전체 학생들 앞에서 대답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질문은 수업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SEF, 1994). 실제로 영국의 중학교에서는 피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생이 상세한 피임방법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때 교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의사나 다른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대답하고 교실내에서의 자세한 피임방법의 설명은 피한다. 영국에서는, 전적으로 교사의 판단에 맡겨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사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DEF, 1994). 그러나 수업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면담시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공식적인 학교 성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서시콜롬 다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성급한 우리나라 성교육 담당교사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Ⅷ. 교사교육과 성교육 자료

교사교육 문제와 성교육 자료의 부족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단기간의 연수나마

성교육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가 성교육 관련교사의 25.9%(김정옥, 1988)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교사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김정옥, 1988; 염복섭, 1982; 조재명, 1981;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회, 1984) 아직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곧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의 성교육 교사훈련도 교사연수교육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 교육대상자는 성교육 수업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있는 교사들이다(DEF, 1994).

성교육에 관한 지식은 원칙적으로 대학 재학시부터의 강의 수강으로 체계있게 얻어져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김정옥, 1988), 이점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전은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진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차원에서의 교사 재교육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영국은 우리와 매우 다르다.

영국에서는 많은 교사 지망생들이 대학 재학시 성교육 관련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또한 그 수가 늘고 있으며(Burke, 1970), 덧붙여 나중에 교사 경력을 쌓아가면서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교사연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도 성교육 연수교육이 일부에

(표 3)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교 성교육 운영방법 비교

	우리나라	영국
성교육 시작시기	대체로 중학교	초등학교
과목의 위상	관련 교과목들에 분산 또는 특별 프로그램	중등학교-독립교과목 초등학교-과학교과에 포함
수업시수	일정치 없음(규정 없음)	주 1시간
교육대상	남, 녀학생	남, 녀학생
교사의 성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문제되지 않음
성교육을 위한 학급단위	기존 학급단위(대개 동성집단)	남녀합반, 남녀분반, 소그룹지도
부모개입	개입 못함	개입 할 수 있음
동료교사의 지원	기대하기 어려움	법적으로 보장됨
수업방법	강의, 시청각 수업, 외부강사 초빙	강의, 시청각 수업, 외부강사 초빙, 보조자 활용, 토론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	전적으로 교사의 판단에 의존	성교육 지침에 구체적인 대응방법 명시

서 시행되어 오고는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를 들면, 한정된 훈련 프로그램, 매우 짧은 훈련과정, 전문 강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칫 형식적인 교육으로 비춰지기도 한다(김정옥, 1988).

한 가지 매우 염려스러운 점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특히 남자 교사들 가운데 성교육 연수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며, 결혼한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이러한 편견은 아마도 학창시절에 전혀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 "결혼하면 다 알게된다"는 성에 대한 전통적 금기로부터 연유되는 것 같다. 이 점은 영국과는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영국에서는 적절히 훈련된 교사만이 성교육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으며(SEF, 1994) 학교 운영위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DEF, 1994).

우리나라 성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오지에서 근무하는 가정과 교사들과 관련이 있다. 산간벽지나 섬에서 근무하는 가정과 교사들 중 상당수는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미혼여성들이다. 이들은 때때로 모교의 교수나 친구들에게, 심각한 성문제를 일으킨 학생지도에 부족한 대책도 없이 본인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호소한다. 실제로 산간벽지나 낙도에 사는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성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김정옥, 1993).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도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산간벽지의 학생들보다 대학 입시에 더 몰두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의 대학진학에 관심이 있는 오지의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만 허락한다면 일찌감치 자녀를 도시의 학교로 유학 보내고 있다. 이 밖에도 생업에 바빠 자녀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부모와 전무하다시피한 청소년 문화공간, 이성교제가 용이한 남녀공학 등 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만일 영국에서와 같이 관련 젊은 교사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교사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문화권에서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어른으로서 교사들에게는 어려운 존재인데 반해서 영국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직책상 책임자로서 교사가 당면한 어려움을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께 문제를 털어 놓는데 이는 또한 교사들의 의무이며 사후의 책임소재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성교육 교사교육 실태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성교육 자료의 경우도 교사교육과 비슷한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성교육 자료의 확보가 교육지원과 교사교육을 위한 보조금(DEF, 1994)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때로 교육청 등지에서 빌릴 수는 있지만 마땅한 성교육 자료—특히 시청각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김정옥, 1988;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회, 1984; 진영옥, 1983). 문헌자료의 경우 초등학교를 위한 '소중한 우리들'(이원구, 1986), '아직도 아끼라고요?'(한국교육개발원, 1994a), 중학생을 위한 '어른이 되나봐요'(한국교육개발원, 1994b), 고등학교를 위한 '사랑과 생명'(천주교 대구대교구 가정사목부(편역), 1992), '우리는 예비 어른'(한국교육개발원, 1994c) 등 최근 내용이 충실한 성교육 자료들이 간혹 나오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자료가 숫적으로 많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교사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개인적으로 좋은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의 자료를 구입해 사용하기도 한다.

(표 4) 학교 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실태 비교

	우리나라	영국
대학재학시		성교육 관련과목 수강
교사발령후	연수교육	3~5년 근무후 대학에서 재교육, 연수교육
성교육 담당교사	관련교과 교사	적절히 훈련된 교사

VIII. 맺는 말

사회적 변화, 특히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영국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필요한 것

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영국인들도 운영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성교육에 관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 관련된 영국 청소년들의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동·서양간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영국의 성교육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발전해 가고 있다. 중앙 행정부 최초의 성교육 관련자료가 1943년에 만들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여년 후인 1960년대에 가서야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에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특히 성교육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상세한 성교육 방침을 정하는 일일 것이다.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성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하기보다는 가정과 또는 생물과와 같은 관련교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교육은 성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인간발달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인간발달 영역은 가정과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중요한 지도요소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정 교과서에 성교육 관련내용이 가장 많으며 생물 교과서에는 의외로 그다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지식을 주는 것만이 성교육의 전부는 아니며,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가장 관련깊은 한 교과에서 책임을 지고 가르치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는 가정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성교육은 남녀간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는 점, 인간의 생식과 관계된 생리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는 올바른 성교육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교육 내용의 관련교과 삽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 예를 들면 지도내용의 범위 설정, 남녀 학생간의 균형잡힌 교육, 시수 문제, 교사교육문제, 성교육 자료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없이는 효과적인 성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절정이다.

성교육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있어서도 두 나라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 주제들도 지도내용에 포함되는

데, gay 또는 lesbian과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되는 문제들도 편견없이 학교 성교육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있다. 동성연애자들을 이해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그들의 삶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자유와 나라, 영국”이라는 상징적 비유와도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교육시 자녀를 격리시킬 수 있는 부모의 권리는 매사에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을 우선 생각하는 영국인들의 사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영국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심각한 성문제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교육자들은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기성세대 역시 청소년들이 성 에너지를 자기조절할 수 있도록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정옥, 1988). 이것은 사회학습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사회화의 과정이 모델링과 관찰학습의 원리로 설명되어진다.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서 모범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며, 사회화 되는 동안 아동들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학습되어진다. 관찰학습에서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될 때 단일모델이 보여주는 행동뿐만 아니라 복수의 모델에 의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Crain, 1980). 이것은 성역할 획득의 설명에 유효한데, 아동이 성역할을 획득하여 갈 때 모델로서 아동에게 관련된 사람은 결코 단일 인물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와 교사들의 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아동·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이 되는지 부정적인 것이 되는지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성에 대한 생각과 사고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교육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기 이전에 교사들의 건전한 성도덕관 확립과 성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성교육에 대한 부모 인식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인간

존중의 정신이 그 밑바탕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인간 존중의 기본철학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성교육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평등과 협력, 인간의 존엄성, 성욕의 승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양국이 서로 상대국가의 지도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를 하였다. 영국의 성교육도 물론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체제하에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비록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방법이 사회 문화적 배경, 국민성, 사회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이 당연한 과제인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발전해 가는 영국의 성교육에서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법전 편찬회, 교육법전(개정판), 1996.
- 김부자,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순오,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사학, 가을 : 22-27, 1983.
- 김영옥, 성교육에 대한 문교부의 방침, 새교육, 10 : 48-49, 1966.
- 김원근,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 문제와 관련한 조사 연구, 공중보건잡지, 6(1), 1969.
- 김정옥, 울릉군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가정생활연구, 8 : 25-34, 1993.
- 김정옥, 학교 성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2.
- 김정옥,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문교부, 초, 중, 고 교육과정,
- 문교부, 성교육 지도자료-교사용-, 1983.
- 문원일, 여자 중학생의 성적 개념-서울시내 3학년 여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박말순,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박인전, 아동의 성적 성숙도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대구시내 국민학교 6학년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박준희, 성교육을 위한 문교정책의 방향, 새교육, 10 : 63-66, 1970.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1.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5.
- 십대들의 족자, 24, 1990.
- 염복섭, 중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의식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윤현숙, 여자 중학생의 성적수준과 그 지식 근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이명화, 중·고등학생들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범수, 중학생의 성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 연구-서울시내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장일원, 성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의식조사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재명, 여자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탐색-학생의 성 성숙도와 부모, 교사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주명자, 유아교육기관 아동의 성교육 지도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회, 중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성교육 의식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2 : 1-149, 1984.
- 진영옥, 중등학교 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연구-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차재순, 여학생의 정결교육, 새교육, 5, 1957.
- 최영기, 중학교 학생의 이성교제 실태조사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최용학, 고등학생의 성도덕관 실태연구-서울시내 남·여학생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1976.
- 탁연택, 한국의 미혼모 문제, 여성, 103, 1974.
- 한국교육개발원, 아직도 아가라고요?, 1994a.
- 한국교육개발원, 어른이 되나봐요, 1994b.
-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는 예비 어른, 1994c.
- 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84.
- Baldo, M., Aggleton, P., & Slutkin, G., Dose sex education lead to earlier or increased sexual activity in youth?, *Berlin Conference on AIDS*, 1993.
- Beckers, S., & Dlugolecka, M., Using an AIDS questionnaire in schools, *Health Education Journal*, 46 (4) : 148-149, 1987.
- Blakey, V., & Pullen, E.,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 an evaluation of a drama - based sex education project for schools, *Health Education Journal*, 50(4) : 161-165, 1991.
- Boyle, M.E., Pitts, M.K., Phillips, K.C., White, D.G., Clifford, B., & Woollett, E.A., Exploring young people's attitudes to and knowledge of AIDS - the value of focused group discussions, *Health Education Journal*, 48(1) : 21-23, 1989.
- Breakwell, G.M., & Fife-Schaw, C.R., Heterosexual anal intercourse and the risk of AIDS and HIV for 16-20-year-olds, *Health Education Journal*, 50 (4) : 166-169, 1991.
- Burke, S., Sex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in : R.S.Rogers (Ed) *Sex education - Rational and reaction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Clift, S. & Stears, D., AID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Education and Health*, 9(2) : 23-26, 1991.
- Crain, W. C., *Theories of development-concepts and application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 222-239, 1980.
- Department For Education, Circular 5/94 Education Act 1993 : Sex Education in Schools, 1994.
- Department of Health, *The health of the nation*, HMSO, 1991.
- Ford, N., *The Socio-sexual lifestyles of young people in South West England*, South West Regional Health Authority, 1991.
- Greaves, J.N., Sex education in colleges and departments of education, *Health Education Journal*, 24 (4) : 171-177, 1965.
- Grunseit, A., Young people and sex/HIV education : the debate continues..., *Promotion and Education*, 1(2) : 21-23, 1994.
- Hämäläinen, S., & Kiukaanniemi, S.K., A controlled study of the effect of one lesson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schoolchildren concerning HIV and AIDS, *Health Education Journal*, 51(3) : 135-138, 1992.
- Harris, A., Sex education in schools, in : R.S.Rogers (Ed) *Sex education - Rational and reaction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Her Majesty's Inspectorate, *Health education from 5 to 16*, Curriculum Matters 6, HMSO, 1986.
- Howe, K.R., AIDS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s : Old wine in new bottl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19(2) : 114-123, 1990.
- Johnson, A.M., Wadsworth, J., Wellings, K., & Field, J., *Sexual attitudes and lifestyles* (Oxfor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1994.
- Jones, E.F., Forrest, J.D., Goldman, N., Henshaw, S., Lincoln, R., Rosoff, J.I., Westoff, C.F., & Wulf, D., *Teenage pregnanc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6.
- Massey, D.E., School sex education : Knitting without a pattern?, *Health Education Journal*, 49(3) : 134-142, 1990.
- Maylath, N.S., & Gray, A.M., HIV education in-service programming for school personnel : a model from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19(3) : 263-271, 1993.
- McEwan, R.T., Bhopal, R., & Patton, W., Drama on HIV and AIDS : An evaluation of a theatre-in-education programme, *Health Education Journal*, 50(4) : 155-160, 1991.
- Newcastle Health Authority and Newcastle City Council, *HIV prevention - A joint strategy for Newcastle : Phase one 1992-1996 consultation document* (Newcastle, NHA & NCC), 1993.
-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Population Trends*, No. 74, HMSO, 1993.
- PHLS AIDS Centre & CDEH(S)U, AIDS/HIV

- Quarterly Surveillance Tables, No. 22, in : Sex Education Forum *developing and reviewing a school sex education policy : A positive strategy*, 1994.
- Redman, J., AIDS and peer teaching, *Health Education Journal*, 46(4) : 150-151, 1987.
- Reiss, M., What are the aims of school sex education, *Cambirdge Journal of Education*, 23(2) : 125-136, 1993.
- Rivers, K. & Aggleton, P.,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 Why young people need more than the 'facts' in HIV and AIDS education, *Hygie*, 12(2) : 22-25, 1993.
- Sex Education Forum, *Developing and reviewing a school sex education policy : A positive strategy*, 1994.
- Stears, D., & Clift, S., *A survey of AID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Horsham, West Sussex, the AIDS Education & research Trust, 1990.
- The Education Act 1993, *Sex education in school*, HMSO, 1993.
- The National Curriculum Counci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guidance 5, 1990a.
- The National Curriculum Council, *Education for citizenship*, Curriculum guidance 8, 1990b.
- Wellings, K., Heterosexual spread of AIDS : A challenge for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Journal*, 46(4) : 143-147, 1987.
- Went, D., *Sex education : Some guidelines for teachers* (London, Bell & Hyman), 1985.
- Young, J. & Phillips, K., HIV/AIDS : Sharing the voice of young people, *Education and Health*, 11 (5) : 65-69, 1994.